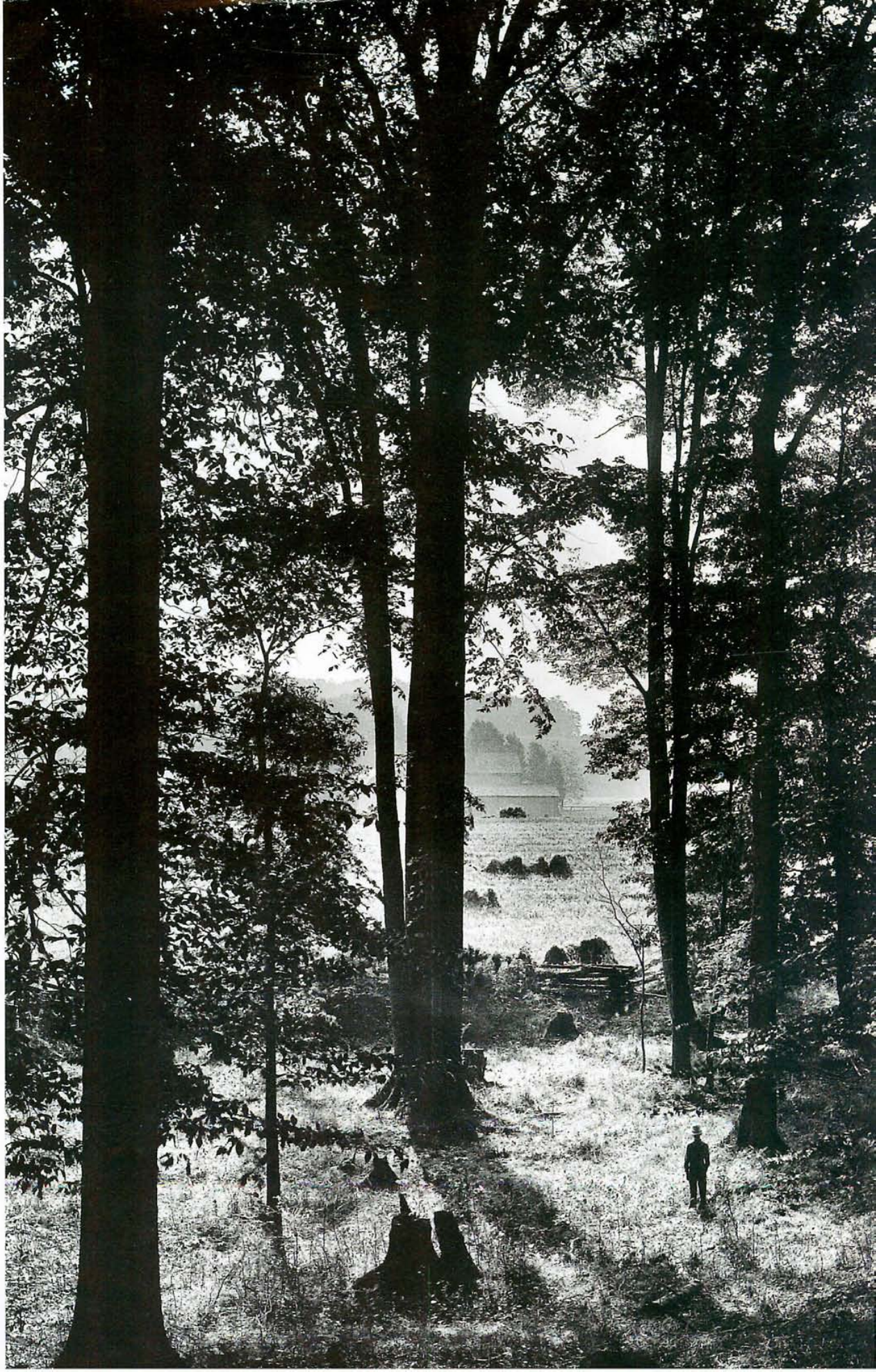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번 6 1997

본책 부록 : 어리이탄



5월의 내 강



표지 설명:

앞 표지: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성스러운 숲, 1907년
 뒤 표지, 위로부터: 유타 주, 맨타이에 건축중인 맨타이 성전, 1886년;
 유타 주, 메이플턴에 있는 이더 블랜차드의 농장, 1902년, "마을
 사진사의 꿈" 16쪽 참조(표지 사진 촬영: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어린이란 표지:

개척자 어린이—과거와 현재(그림: 줄리 에프 영)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6 마을 사진사의 꿈 빌슨 에드워드
- 26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나탈리아 블라디미로브나 레오노바
- 28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로" 케이 아이 앤더슨
- 34 아이슬란드—개척담 계속 디앤 워커
- 40 나의 꿈이 실현됨
 마리아 로신카르스도티가 디앤 워커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

청소년란

- 8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 15 과거의 상한 감정을 돌아 보며 수잔 테니에이
- 42 들종다리새 알 발 존슨
- 44 신권의 권세는 실재합니다. 피터 포마트
- 46 신앙을 지킨 50년 훈자 톨사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순종을 통한 지혜
- 3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물문경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심
- 5 노래: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 6 친구 사귀기: 인도네시아 요기야 카르티에 사는
 크리스천 네피와 에르나와티 수하르토 마이즈 티 류아손
- 8 함께 나누는 시간: 연구와 기도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 캐런 애쉬튼
- 10 탐험: 미주리 주에서의 박해 세리 존슨
- 13 심심풀이
- 14 이야기: 경주 도너 게머쉬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고든 비 핑클라,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배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에이트, 닐 에이 맥스웰, 리셀 엠 발스,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리셀 발라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다 해월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럴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드, 윌 라이오널 캔들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니이텐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헬리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편집스텝:

관리 편집인: 미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라우드
편집/제작부장: 에리엔 미터델
제작보조: 베스 테일리

디자인스텝: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벵 켈렌
디자인: 캐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스, 테니즈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스텝:

책임자: 케이 더블류 보리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375호, 제34권, 제6호
동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권
편집인: 현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훈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34 번역 승인-8/34 June,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66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왕인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료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앞/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8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몇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휴일

저는 열 다섯 살이며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를 받는 날은 저에게는 휴일과도 같습니다.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언어로 발간되는 교회 잡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침례와 확인 안수를 받은 이래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며 그분과 함께 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걸을 때, 저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라 카스비올리나

러시아 로스토프 선교부

러시아 로스토프 지부

영적인 길잡이

지금의 제 생활에 레드왈(불어 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잡지에서 필요한 영적인 안내를 찾습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영감의 메시지와 온 세상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레드왈은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조언을 실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렉시 토바 알바레즈

리옹 프랑스 스테이크

생띠엔 지부

나침반

저는 제 생애 초기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 여섯 살로 콜롬비아

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많은 축복을 주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참으로 제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12월호를 읽고 제 마음은 기쁨에 넘쳤으며, 이 기쁨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젤리카 마리아 베라

보고타 콜롬비아 엘도라도 스테이크

코르티호 제1와드

무엇을 빠뜨린 것 같음

어느 화요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하루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무엇을 빠뜨린 것 같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란 생각이 들어 우편함에 가 보니 최근호가 와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로메스 기랄도 가르샤

제노바 이태리 지방부

제노바 제1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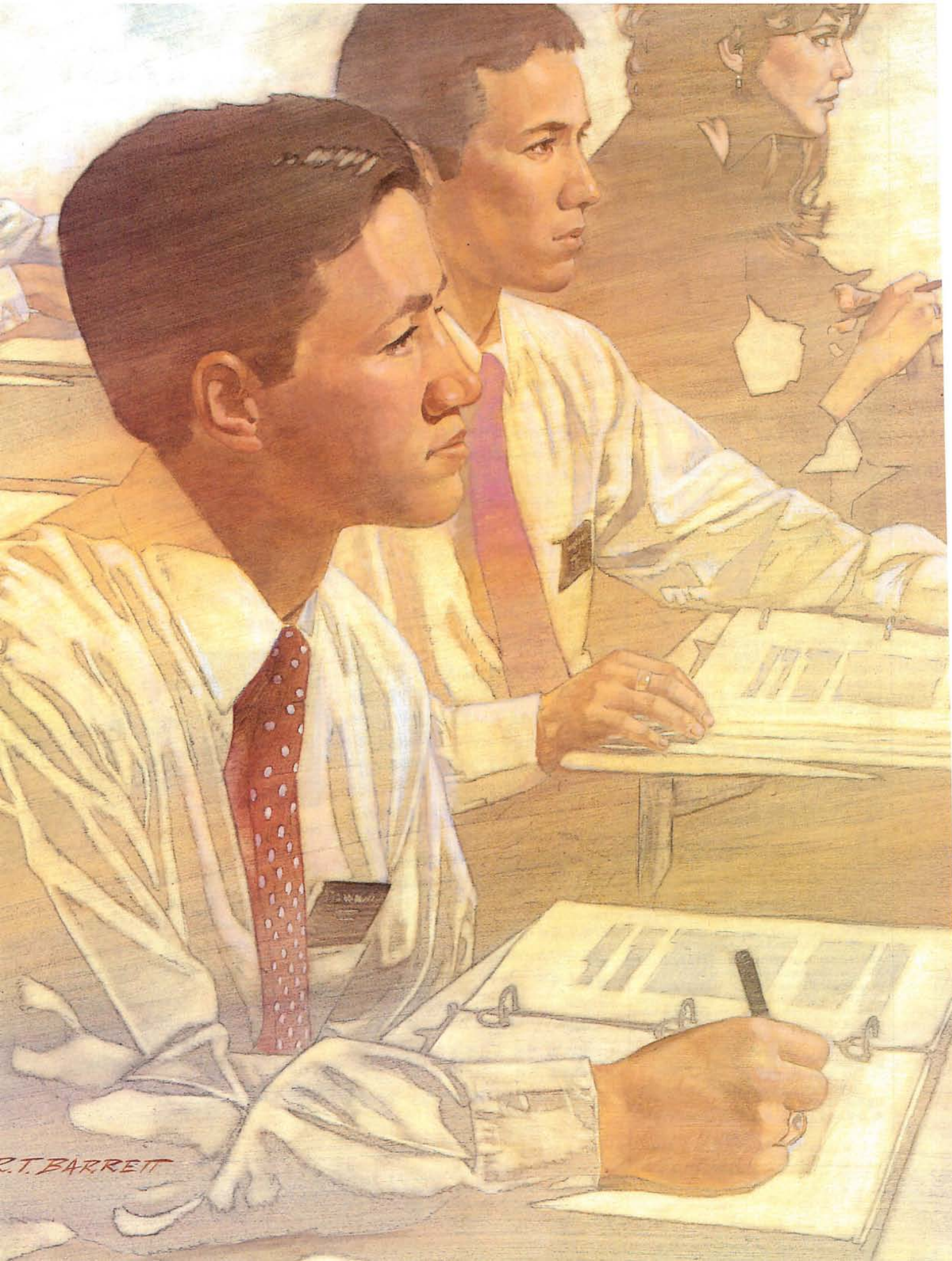
리아호나

리하이와 그의 가족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는 대판장단의 메시지와 물문의 메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엘바 알레이다 보닐라 엔리케스

과테말라 시 과테말라 마리스칼 스테이크

메스퀴탈 와드



R.T. BARRETT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최 근에 저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는 전세계로 퍼져 나가 봉사할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게 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초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나 불어, 독어, 스웨덴어는 어렵듯이나마 들을 수 있었으나, 일본어, 중국어, 핀란드어는 전혀 알아 들을 수 없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말을 배우기 위해 헌신하고 몰두하는 모습에는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원에서 한 선교사가 자신이 부름 받아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점심 시간에 복잡한 동양 언어를 배우고 있는 선교사의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만히 듣다 보니, 갑자기 스페인어가 어렵지 않게 느껴져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학식있는 사람들이 쓴 교재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읽고 암기



모든 선교사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의 언어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언어에 속달하는 사람은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문자로 된 좁은 한계에서 벗어나, 영이 베풀어 주는 무한한 기회를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린도후서 3:6)

위험과 시련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이해는 마음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신약전서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에 깨우침의 영을 불어넣어 줍니다. 절망의 그늘이 소망의 빛으로 인해 사라지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앎으로써 군중속에서의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구세주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심으로써 이 진리를 더욱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태복음 10:31~32 참조)

우리는 매일같이 시련을 받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부터 단절감이나 심지어는 고립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혼자 걷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심의 잠자리와 외로움으로 눈물에 젖은 베개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여호수아 1:5) 아니하리라는 거룩한 확신과 귀중한 약속의 말씀으로 고양되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한 위안은 수많은 갈래와 구비가 얽혀 있는 지상 생활을 헤쳐나가는 데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좀처럼 눈에 띄는 표적이나 큰 음성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의 언어는 은화하고 조용하며, 마음을 고무시켜 주고 영혼을 달래 줍니다.

흔히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해답과 매일의 기도

에 대한 응답은 고요한 영의 속삭임을 통해 오게 됩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그 경륜 측량 못하고
참 기이하다...
연약한 생각으로 불평 말고
주님 은혜 의지하라
엄한 섭리 뒤에는
미소편 얼굴 숨어있네.
(찬송가, 178장 참조)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속삭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 영의 속삭임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므로 그것이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마음의 꽃잎”이라고 하셨던, 즉 영의 언어 또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대한 세 가지 귀중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봉사의 부름에 따르는 영감

모든 감독은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 수반되는 속삭임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러한 부름에는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 시절에 저는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 대하여 걱정했습니다. 차를 몰고 벤과 에밀리 부부가 살던 거리를 따라 달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느끼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가정의 울타리에 들어가 세상의 일상 생활의 흐름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이었으나, 차를 세우



영의 속삭임으로 인해 에밀리와 벤은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자매는 다가오는 와드 대회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독창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벤 형제는 아른 신권 정념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 벤과 에밀리 부부를 찾아봐야 한다는 분명한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자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감독인 제가 온 것을 알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종일 전화라도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우체부가 편지라도 가져 왔으면 했지만 가져 온 것은 청구서 뿐이었어요. 감독님, 오늘이 제 생일인 것을 어떻게 아셨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그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 보기로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여 응답을 얻었습니다. 에밀리 자매에게는 다가오는 와드 대회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독창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벤 형제에게는 아른 신권 청년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따를 때 안전함을 얻게 된, 일상 생활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매는 노래를 불렀고, 형제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되돌아와 활동하게 되자, 사람들은 진심으

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찬식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영의 언어가 주어지고 이해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

두 번째 예로는 와이오밍 주 스타 벨리의 스테이크 부장이셨던 고 이 프란시스 윈터즈 형제님의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성품이나 생활 환경이 겸허한 그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때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헌신적으로 바친 이 훌륭한 지도자에게 모두 다 소리없이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이 재조직된 다음, 말씀을 하고자 일어난 저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란시스 윈터즈 형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테이크를 이끌어 왔는가를 말한 다음, 어린 시절에 그의 축복을 받고 확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윈터즈 부장에게서 성임이나 성별을 받고, 개인적으로 면담이나 축복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모두들 말보다 더 훌륭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윈터즈 부장 부

부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의 속삭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은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훌륭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함

저의 친한 친구 스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강건하고 운동을 즐기는, 여러 면에서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가장 권위있는 의사들이 그를 돌보고, 가족과 친구들은 소망과 신뢰의 영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계속 대학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저는 데저렛 체육관에서 수영을 했는데, 배영을 하면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히 내 마음 속에 “네 친구 스탠은 움직일 수 없는데 너는 여기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를 축복해 주어야.”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영을 중지하고, 바로 옷을 입고 서둘러 그의 병실로 갔습니다.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으로 가서, 치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그 곳으로 가서 보니, 스탠은 혼자서 수영장의 가장 깊은 부분의 가장자리에 다가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의 병실로 돌아와 신권의 축복을 행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게 스탠의 다리는 힘을 되찾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섰으나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씩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스탠이 것처럼 죽음과 가까이에서 아무런 회복의 희망도 없이 누워 있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스탠은 교회 모임에서 주님이 그에게 보여 주신 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절망적인 삶을 선고 받은 듯이 여겨지는 그때,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있던 그날 오후에 자신이 가졌던 깊은 좌절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 보기싫은 휠체어를 깊은 수영장의 소리없는 물 속으로 밀고 들어가기란 극히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깊은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보기 싫은 휠체어를 깊은 수영장의 소리 없는 물 속으로 밀고 들어가기란 극히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 친구인 저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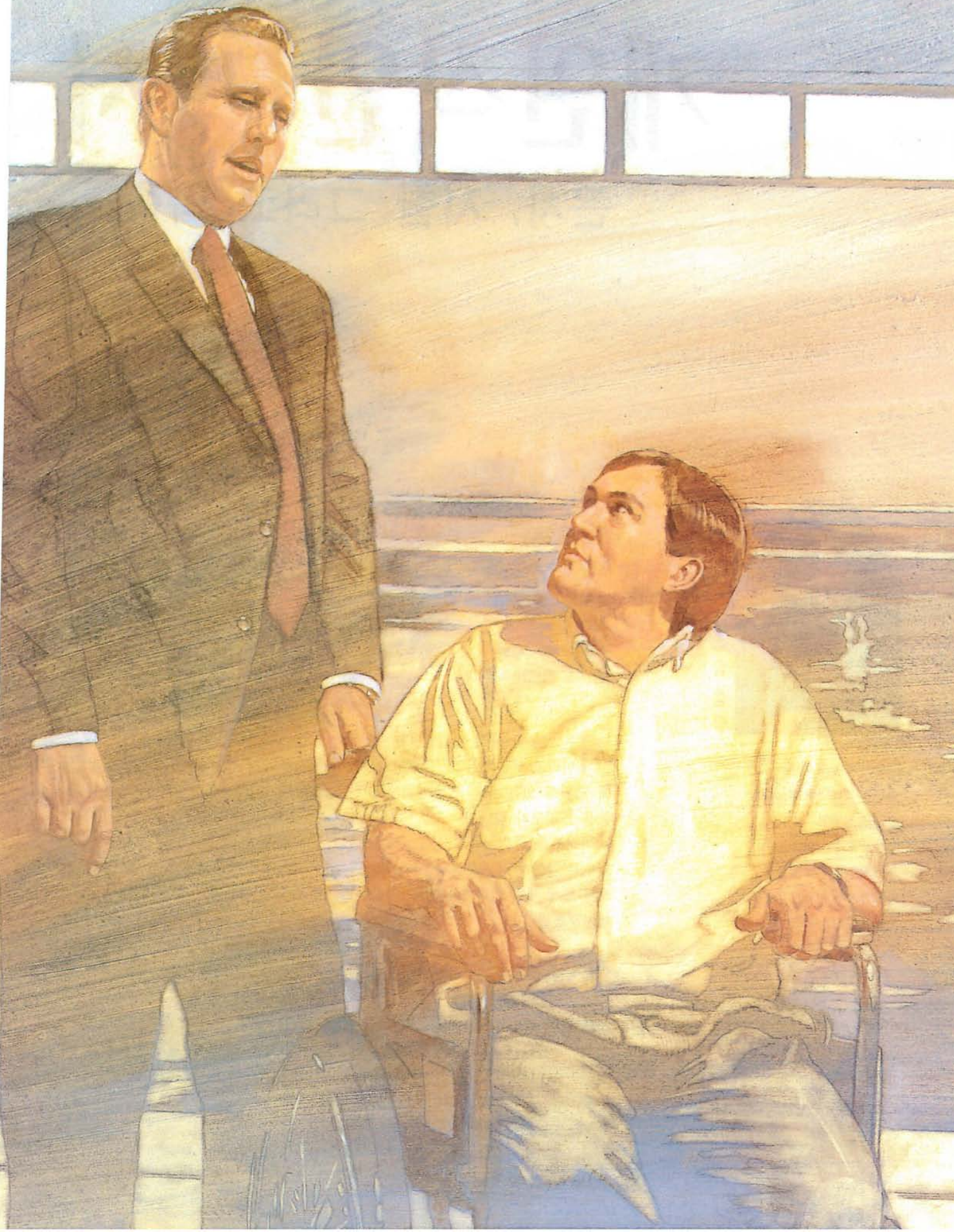
게 되면 그의 삶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 친구인 저를 보았습니다. 그날, 스탠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저도 역시 그날,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속삭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스탠의 막내 아들이 영원한 결혼을 할 때 그 가족들은 모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가 목격했던 그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으나 조용한 감사의 찬송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느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영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온유한 권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이것이 바로 영의 언어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으며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분과 같이 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배움과 이해의 언어인 영의 언어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2. 영이 주는 위안은 인생의 여정에서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3. 영은 좀처럼 눈에 띄는 표적이거나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의 언어는 온화하고 조용하며 마음을 고무시켜 준다.
4. 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한다. 영의 속삭임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계시

은사, 시험 그리고 약속



사진 촬영: 엘트 언더우드

기도는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없다면 장막이 여러분에게는 닫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이 보충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저는 사도 바울이 말일에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위험한 시기"에 당면해 있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제가 배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면적인 존재

여러분에게는 필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받은 육신과 그 내부에 있는 불멸의 영이라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만지거나 느끼거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성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한 지식의 대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으로만 배운다면, 여러분은 영과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밖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경전은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무지할 수가 있으며, 무지하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¹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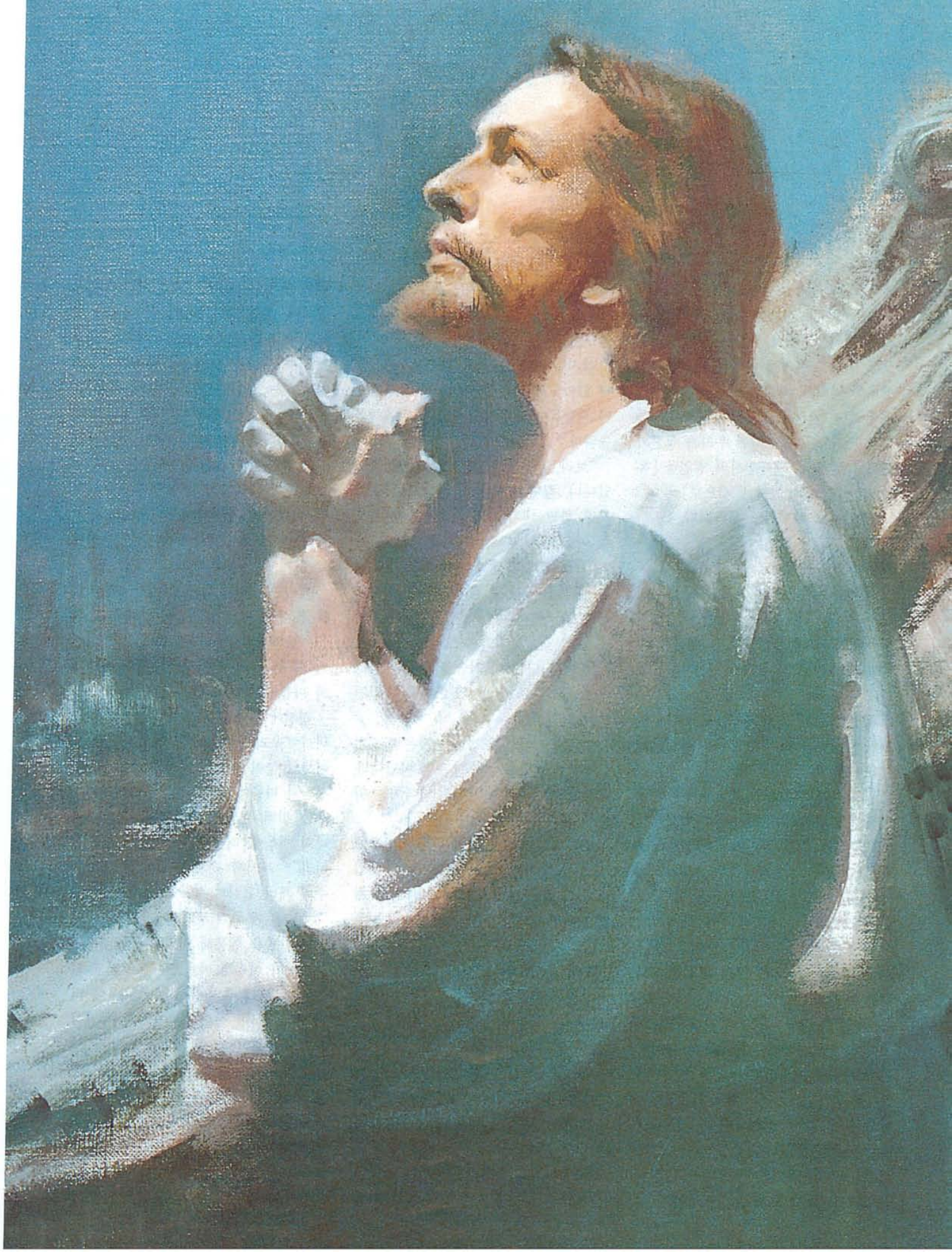
여러분의 영은 지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²며,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³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 듣고, 느낀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시에 대해 가르쳐 드리되, 경전에서 사용된 대로 이것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성신의 은사

여러분은 침례 및 확인 의식을 거친



후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성신이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면 그 은사가 성신을 "변치 않는 네 동반자"⁶로 모실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⁷

우리는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⁸한다고 배웠습시다. 심지어 우리가 성신의 권세로 말을 할 때 "천사의 방언을 [혹은 천사의 말과 똑같은 것으로] 말하"⁹는 것이라고 배우기도 했습시다.

기도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영감은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한, 다가오지 않거나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기도, 즉 간구하라는 권유나 명령만큼 많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없습시다.

기도는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없다면 장막이 여러분에게는 닫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바로 시작함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젊어서 제멋대로 행동했던 예언자 엘마와 같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¹⁰는 폐쇄적인 마음의 앰블레크와 같다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물쇠는 장막의 여

러분 쪽에 있습니다."¹¹

연구함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력 없이도 계시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이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너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¹²

여기서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느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반짝이는 따뜻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속삭임은 철저할 만큼 개인적이며 사적인 것입니다."¹³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

성신은 여러분이 듣기보다는 느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¹⁴이라고 묘사됩니다.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속삭임을 "나는 느낌을 받았는데..."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

림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닮게 될 것입니다."¹⁵

계시는 우리가 듣기보다는 느끼는 말로 옵니다. 니파이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바 있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¹⁶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많습시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견고하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 지라."¹⁷ "나는...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¹⁸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¹⁹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²⁰ 계시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은 수백 개나 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예언자 이노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²¹ 이어서 이노스는 주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이것은 아주 평범한 수단을 통한 계시입니다. 계시는 말과 문장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계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²²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누가복음 24:32)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리와 성약 9:8)

고 하지 않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메시지가 평범하게 다가올 때... 이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경이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계시의 말씀에는 온전히 집중하며 주의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²³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삭임

영의 속삭임은 부드러운 소리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지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거기에 불순종하면 영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즉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신앙을 행사하게 되

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성만으로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믿게 됩니다.²⁴

신앙을 행사하는 첫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써 복음 원리를 시험하면, 영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거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이 보충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구속주와 부활 및 회복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계속 솟아나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샘”²⁵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신은 감정을 통해 아



믿음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이 보충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구속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생명수의 샘" (교리와 성약 63:23)이 될 것입니다.

주 가깝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²⁶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시에서 금하는 흥차, 커피, 알콜 음료, 담배 등의 습관성 물질은 기타 중독성 약물들이 그렇듯이 섬세하고 영적인 교통을 방해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경시함으로써 이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²⁷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건강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음악

모든 종류의 건전한 음악을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성스러운 음악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우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²⁸

고전적이거나 대중적인 차원에서 세속적 음악이 고무적일지는 모르나, 이것은 성스러운 음악처럼 영의 지시를 받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²⁹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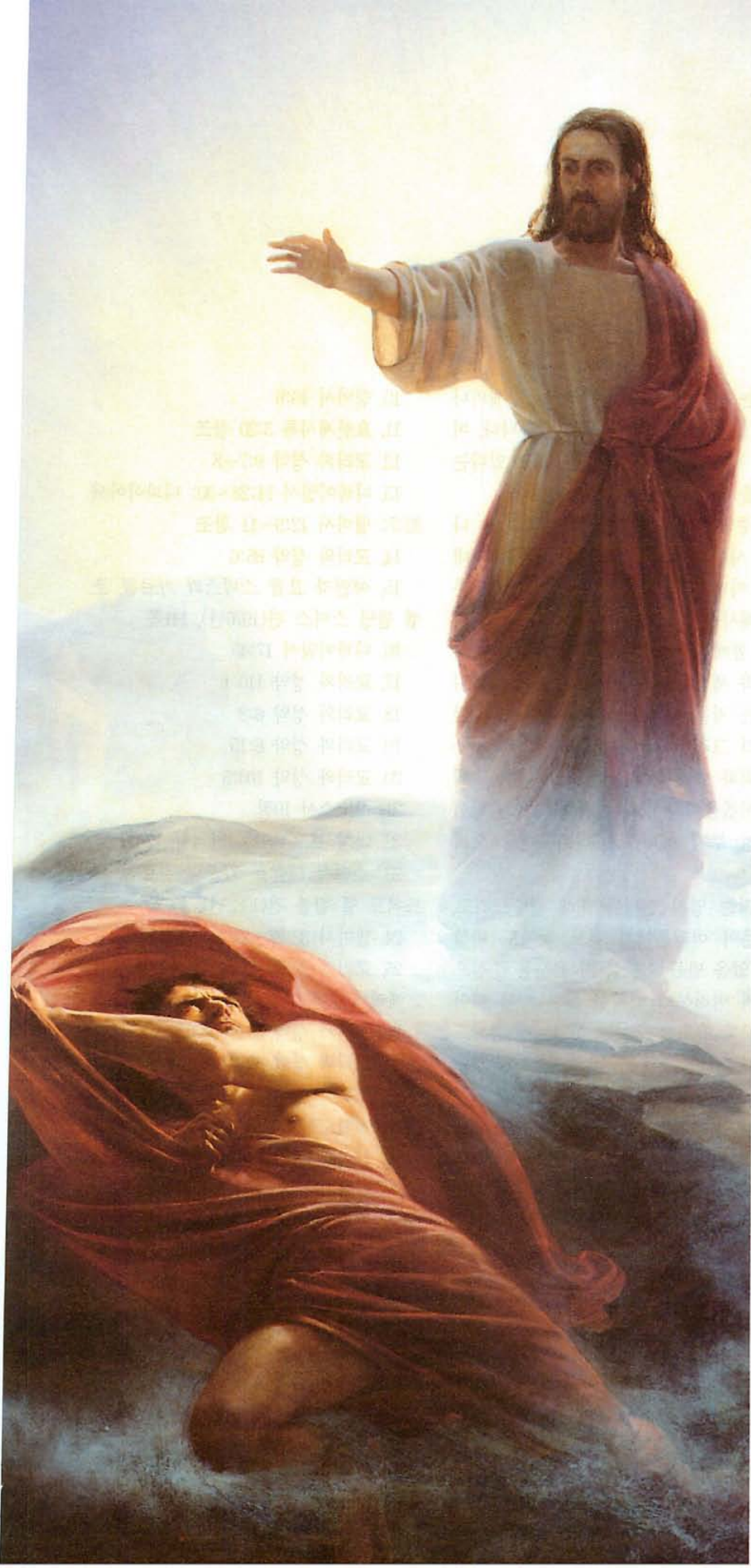
경건하게 연주되는 전주 음악은 영을 고양시킵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주 음악이 연주되는 시간은 어느 시인의 말대로 "가슴으로 들어가 그대의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을 물어 보아"³⁰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주가 연주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계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이다"³¹

자,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은 영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음악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음악의 박자와 소리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영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혹

젊은이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속이는 거짓 영이 많으니라."³² 사탄의 속삭임에서 비롯되는 가짜 계시, 즉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적은 어떤 방편으로든 여러분을 실족시키려 할 것입니다.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³³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마음으로 잘못임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의의 원리들에
반대되는 것을 하게 하는
속삭임을 받는다면,
이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악령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
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
습니다.”³⁴

몰몬경의 모로나이서 7장은 영적인
속삭임에 대해 시험하는 법을 알려 줍
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으
십시오.

약간의 시행 착오를 통해 여러분은
이러한 속삭임에 주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마음으로 잘못임을 알게 하는 것, 그리
고 의의 원리들에 반대되는 것을 하게
하는 속삭임을 받는다면, 이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님은 꿈과 시현 혹은 임재하심을
통해, 또한 천사를 통하거나 그분 자
신의 음성 및 그의 종의 목소리를 통
해 뜻을 나타내십니다.³⁵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
으니라.”³⁶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예언
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

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든지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줍니다.”³²

여러분은 한 가족의 부모로서, 아니면 합당하게 부름을 받아 성별된 지도자나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비판적이 되어 부정적인 느낌을 품는다면, 영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야 영이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감의 채널은 항상 그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따를 때 안전합니다.

보혜사

여러분이 슬픔과 실망, 실패와 두려움을 겪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없어서는 안됩니다.

참기 어려운 시련이 임할 때, 여러분은 성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의 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³³ 가면서 삶에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어떤 증거를 갖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문이 많던 어린 시절에, 세미나리 교사의 간증에 의존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몰랐어도, 교사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소나마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³⁴

저는 영의 권세에 대해 간증드리고, 젊은이 여러분에게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 은사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199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디모데후서 3:1
2. 욥기 32:9
3. 디모데후서 3:7
4. 욥기 32:8
5. 교리와 성약 84:46
6. 교리와 성약 121:46
7. 모로나이서 10:5; 니파이이서 32:5 참조
8. 니파이이서 32:3
9. 니파이이서 31:13; 32:2

10. 엘마서 10:6
11. 요한계시록 3:20 참조
12. 교리와 성약 9:7~8
13. 니파이일서 14:28~30; 니파이이서 32:7; 엘마서 12:9~11 참조
14. 교리와 성약 85:6
1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141쪽
16. 니파이일서 17:45
17. 교리와 성약 110:1
18. 교리와 성약 8:2
19. 교리와 성약 6:15
20. 교리와 성약 100:5
21. 이노스서 10절
22. 대회 보고서, 1964년 4월, 124쪽
23.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1982년), 457쪽
24. 엘마서 32:27~28, 38 참조
25. 교리와 성약 63:23; 요한복음 4:14; 예레미야서 2:13 참조
26.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27. 교리와 성약 89:19
28. 교리와 성약 25:12
29. 에베소서 5:18~19
30.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부, 2막, 2장, 136~137행
31. 시편 46:10
32. 교리와 성약 50:2; 3절 참조
33. 모로나이서 7:17
3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3쪽
35. 교리와 성약 43:25 참조
36. 교리와 성약 1:38
3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쪽
38. 니파이일서 4:6
39. 요한복음 14:15~18

과거의 상한 감정을 돌아 보며

수잔 터니에이

구세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셨다. 심지어는 마음이 상하거나 그들이 그분을 오해하고 거절할 때조차도 그러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할 때 자기의 상한 감정을 그냥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선을 행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38; 마태복음 5:43~48 참조)

다음에 열거된 질문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응대하기보다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고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심코 한 것인가?

■ 이 사람이 한 말은 진실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비록 그 사람이 불친절할지라도 내 자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이 사람이 지각 없이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참작해 줄 만한 상황은 없는가?

■ 이 사람이 감수성과 기지를 키울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 구세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싶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교만과 노여움을 극복하고 사과하며, 우리의 감정을 자제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우리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시각과 이기심을 변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





마을 사진사의 꿈

넬슨 에드워드



유타 주 스프링빌의 이 호리호리한 곱슬머리 마을 사진사는 카메라를 맨 물론 감독이었는데, 세기가 바뀌는 동안, 사람들은 유타

중부의 흙먼지 이는 시골길에서 덜컹거리며 돌아 다니는 그의 마차를 볼 수 있었다. 이동식 촬영실 겸 암실인 그의 텐트는 그 지역의 소도시에서는 낯익은 광경이었다. 그는 1877년에는 솔트레이크에서, 그리고 1881년에는 유타 주 맨타이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였고, 그 후 유타 주 스프링빌에서 스튜디오를 열어 계속 "사진찍는 일"을 하다가 1928년에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무려 30,000점 이상의 원판과 사진을 유산으로 남겼다.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1860~1928)은 생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감독과 선교사였으며 여행가이자 자금도 없이 자신의 기술로 일하여 성공했던 비범한 사진사였다. 그는 가장 왕성하고 예술적인 사진사 중 한 사람으로서 유타 주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꿈을 지니고 있었다.

그 꿈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앤더슨 형제는 사진과 짧은 글로 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역사적 자료철을 꿈꾸었다. 그는 그러한 사진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줄 매우 귀중한 선교 사업 도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단 말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났던 곳과 그가 시현과 계시를 받았던 곳, 도시를

세웠던 곳, 그리고 마침내 그가 피를 흘렸던 곳을 답사해 보기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러나 그런 여행을 하자면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1907년에 바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앤더슨 형제는 유타 주 스프링빌 와드의 감독 직분에서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곳에 가려면 교회의 역사적인 지역들을 지나가야 했다. 앤더슨 형제는 그 지역들에 잠시 들러 역사적인 유적지의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나부와 커틀랜드와 인디펜던스 및 뉴욕,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등과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사적지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다. 그의 사진들은 이러한 장소들이 일 세기가 지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물이며 당시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흥미가 더해지는 기록물이다.

앤더슨 장로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그러한 사적지에 다시 들러서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들에 대해 더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스프링빌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교회 역사를 기록물로 남기는 일을 추진하는데 열중하였다. 그는 1928년에 애리조나 성전이 건축되

원쪽: 1907년에 앤더슨 장로는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할 올바른 장소를 찾기 위해 영감을 구했다. 그는 작은 언덕을 넘어가다가 그 곳을 찾았다. 아래쪽에 서 있는 소년의 선명한 모습과 함께 역광을 받은 나무의 윤곽이 앤더슨 형제가 전생애 동안 찍었던 사진 중 가장 인상적이고 극적인 영상을 만들어냈다.

위: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에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찍었던 가족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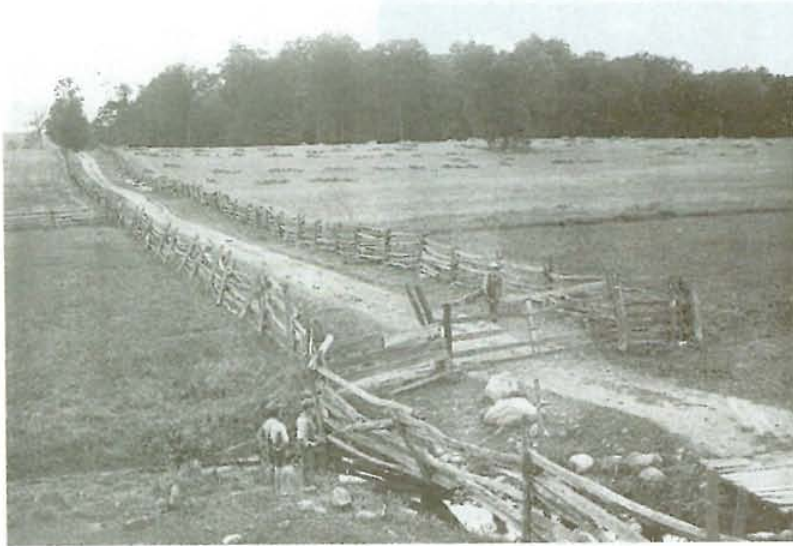
왼쪽부터 올리브 로우리 앤더슨 자매, 에다, 지 로우리, 앤더슨 감독, 에바

봄의 풍경

는 모습과 완공된 모습을 찍기 위해 애리조나에 있는 동안, 병이 들어 조금
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1928년 5월 9일에 유타 주 스프링빌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젊은 이웃인 에바 크랜
달은 지역 신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 마을 사진사"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는 자신이 여행한 그 장소들을 성지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가 '이
신성한 지점들을 카메라에 담아야 해... 내가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변



왼쪽 위: 앤더슨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초봄의 아름답고 화창한 날을 택해서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푸른 숲으로 향하는
좁은 시골길을 걸어갔다. 그는 신성한 숲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하여 세 명의
소년들을 아름답게 배치한 사진을 만들었다.

왼쪽 아래: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론 신권을 부여 받고 서로 짐레를
베풀었던 펜실베이니아 주 사스케하나 강

오른쪽 위: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던 요셉과 루시 맥 스미스의 농장

오른쪽 아래: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 판을 처음으로 보았던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구모라 언덕









왼쪽 위: 일리노이 주 나부의 중심가 끝에 위치한 나부 하우스와 부두 및 증기선 하선지

왼쪽 아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커틀랜드 성전과 공동 묘지

오른쪽 위: 1907년에 일단의 선교사들과 회원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생전의 마지막 해에 기거했던 일리노이 주 나부의 맨션 하우스를 방문했다.

오른쪽 아래: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이 폭도들에 의해 순교당했던 일리노이 주 카테지의 카테지 감옥

해 있을거야. 이 오래된 건물 중 어떤 것들은 없어졌을거야.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 듯 합니다.”

본 기사에 실린 자료 중 일부는 렐 지 프란시스의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이 찍은 유타의 사진(1979년)과 리차드 네이켈 홀차펠, 티 제프리 코틀과 테드 디 스토다트가 편집한 흑백 사진의 교회 역사(1985년)를 참조하였음.



아래: 유타 주 마운틴 프리잔트의 마을
 이발사인 제임스 워커가 수염을 어떻게
 깨끗하게 손질하는지 시범을 보여 주고 있다.
 오른쪽: 유타 주 스페니쉬 포크의 잭스 앤드
 산즈 빗자루 제조 공장, 1996년



위: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은 개척자들의 생활
 양식을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가족들에게
 그들이 소지한 물품들을 전시하라고 권했다.
 유타 주 캐슬 게이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가족은 훌륭하게 지어진 집의 앞문 옆에
 있던 흔들의자와 어린이 식사용 의자 및 말을
 보여 주었으며 방금 세탁한 옷을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것도 보여 주었다.





DEX & SONS
BROOM FACTORY



TRADE MARK
REGISTERED
DESIGN

오른쪽 위: 유타 주 스프링빌의 앨버트 맨워링 부인과 자녀들, 1903년. 앨버트 맨워링은 잉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이 가족 사진을 받았다.



오른쪽 아래: 스탠리 가드너의 동료 노동자들(section crew), 1900년 유타 주 인디아놀라



아래: 솔트레이크 계곡 입주 50주년 기념식 때 생존해 있던 1847년의 목민 개척자들. 100년 전에 찍은 이 사진에 대해 1897년 7월 24일에 에다 앤더슨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버지께서 유타 개척자들의 사진 중 가장 아끼시던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여러 사진사들은 그것은 불가능하고 헛된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노인들을 그렇게 오래 함께 찍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해내셨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심지어는 뒷모습까지도 너무나 뚜렷하게 찍혀서 각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순종을 통한 지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교리와 성약 46:17)

어린 소년이었던 구세주께서는 “자
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누가복음
2:40) 있었다. 구세주처럼 우리도 지혜
로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복음 원리
에 충실히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의 은
사를 받게 되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삶
을 살 수 있게 된다.

순종은 지혜의 근본이 됨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을 알고 그 계명대로 사는 가운데에 주
어진다.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의 아들이야, 네가 젊
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
라.”(엘마서 37:35) 모든 일에 지혜를 얻
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에게 주
신 계명을 지속하여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
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이서 28:30)
지혜가 증진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어떤 가족은 물론경을 공부하면서 에
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조언에 순
종했을 때 지혜를 얻었다. 그들에게는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루에 고작 한 단 밖에 읽지
못했다. 그 속도로 니파이일서를 읽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5년 뒤 엘

버타 싱전 밖에서 성전 헌납식이 시작
되기를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 마지막
장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 집의 가장
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한다. “우리는 어
떠한 천사를 본 것도, 또한 그의 목소리
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평온과 화평과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성신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44쪽) 그들은 경전 공부를
통해 받았던 축복, 즉 신앙이 증진되는
축복,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가족간에 더욱 깊어진 사랑과 평안함에
감사드렸다.

겸손한 자에게 오는 지혜

지혜의 은사는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
는 자에게 온다. “무지한 자는… 자기를
낮추며 주 저의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
를 얻으라.”

“이는 나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겸손
하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
며…”(교리와 성약 136:32~33)

한 젊은 자매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에서 중요한 복음 원리 하나를 이해하
게 되었다. 그날의 공과는 자신이 지난
날의 범법을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고는 순종해야 함과 자신
의 범법을 고백해야 함을 알았지만 두
려운 나머지 감독에게 그 사실을 이야
기하질 못했다.

겸손히 기도하던 중 그녀의 마음에
는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너 두
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
님 나 함께 하리라”(“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지혜와 확신을 얻은 그
녀는 감독에게 가서 회개의 과정을 밝
기 시작했다.

열 네 살의 요셉 스미스가 “오직 믿
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야고
보서 1:6) 앓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
다는 약속을 읽었을 때 회복이 시작되
었다는 사실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요셉 스미스는 겸손
히 지혜를 구하였으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
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며 꾸짖
지 아니하시리라”(요셉 스미스서 2:26)
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간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얻
는가? □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나탈리아 블라디미로브나 레오노바

그림: 래리 윈버그

어린 시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던 우리 집에는 훌륭한 서가가 있었지만 성경은 없었다. 나는 어른이 되자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교회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성경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에겐 두 딸이 있었으며, 큰 딸이 결혼하여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척 기뻐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슬픔에 잠

긴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 그는 성경을 읽었으며 그것에 대해 아



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나는 때때로 그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달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마음의 슬픔을 털기 위해 교회에 나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교회에서 나는 한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그에게 내 이야기를 조금 들려준 후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침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으며 또한 내가 남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또한 완전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목사는 나의 마지막 희망까지 거두어 가 버렸다. 나는 위안을 받기는커녕 더욱 낙담하게 되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내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우연히 막내딸이 유타 주 로간에서 온 과학자 몇 명을 우리 집에 유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들은 우주 정류장 미르(Mir)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러시아에 왔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은 모스크바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애써 주다가 내 슬픔의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 과학자 중 한 명이었던 게일 빙햄이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왜 울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분 곁으로 데려가신 것을 알지 못하세요? 당신 남편은 그렇게 지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다시 만날거예요."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빙햄 형제는 곧 선교사를 보내어 나를 방문하게 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와 간증이 낯설게 여겨졌으며 그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단순히 어머니로서 갖는 염려에 불과했다. 나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고향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이 추운 러시아에 보낸 그들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들이 염려하고 있을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동안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가르침에 따라 서서히 마음이 열렸으며 교회에 매주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돌아섰다. 남편에 대한 상실감이 가벼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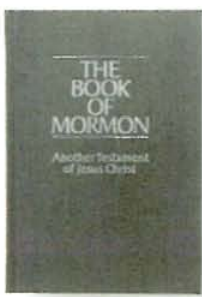
마침내 1995년 12월 10일에 빙햄 형제가 내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 내게 있어 그 힘은 마침내 내 인생에서 주님을 믿게 된 신앙이며 성전 의식을 통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다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

침례식에서의 레오노바 자매(가운데). 그녀 옆으로는 딸인 타티아나와 게일 빙햄 형제 맨 왼쪽과 오른쪽은 복음 선교사인 켈리 앤 드라이든 자매와 마린사 알 로빈슨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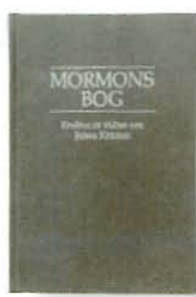


사진: 본인의 여력을 받아 개제함.

나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영어판, 1830년 (1982년)



덴마크어판, 1851년 (194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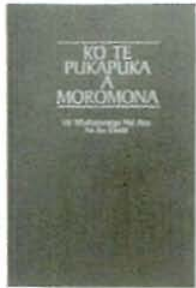
프랑스어판, 1852년



독일어판, 1852년 (1980년)



이탈리아어판, 1852년 (1995년)



미오리어판, 1889년



네덜란드어판, 18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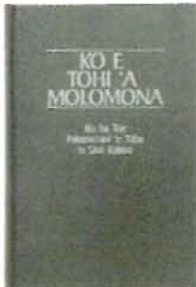
시모어어판, 19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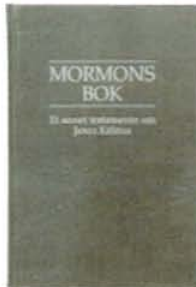
타가타어판, 1904년



일본어판, 1909년 (1995년)



몽기어판, 1946년



노르웨이어판, 1950년



핀란드어판, 1954년



중국어판,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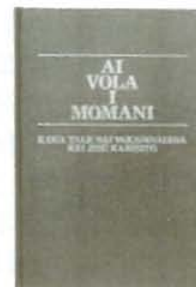
레로통기어판, 1965년



인도네시아어판,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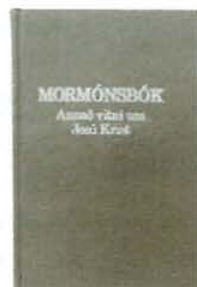
크로아티아어판, 1979년



피지어판, 1980년



카탈로니아어판, 1981년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의 산동여
있는 공화국인 안도라의 공용어)



아이슬란드어판, 1981년



베트남어판, 1982년



çek어판, 1983년
(괴테말라 토속어)



아랍어판, 1986년



어어어어어판, 1986년
(볼리비아의 탁우의 인디오족)



의랍어판, 1987년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로”

카이 에이 앤더슨

사진 촬영 : 윌튼 앤더슨;

로버트 티 배렛, 금판을 번역하는 요셉 스미스

“나는 (몰몬경이) 전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로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기를(바랍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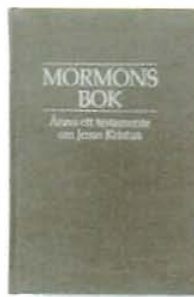
편, 1976년, 172쪽)

몰몬경이 아직 지상의 모든 나라 말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회원 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몰몬경 번역은 계속되고 있다. 1997년초까지 몰몬경이 번역 출판된 언어는 87개 국어이다. 이 중 40개 국어의 몰몬경은 완전 번역판(완역판)이고 나머지 47개 국어의 몰몬경은 부분(발췌록)번역판이다. 87개 국어 번역판에는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 다음 4개 국어의 완역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웨일즈어판(1852년), 잉글리쉬 데저렛 알파벳판(1869년), 아르메니아어 필기체로 된 터키어판(1906년) 및 서부 아르메니아어판(1937년). 로마 알파벳을 사용하는 터키어 몰몬경 발췌록판과 서부 아르메니아어 발췌록판은 현재 출판되어 있다.

이중 40개 국어 몰몬경은 완역판 (=완전 번역판)이다. 표시된 연도는 최초의 출판 연도를 나타내며 괄호내 연도는 최근의 출판 연도를 나타낸다.



아와어판, 1855년



스웨덴어판, 1878년



스페인어판, 1886년(1992년)



체코어판, 19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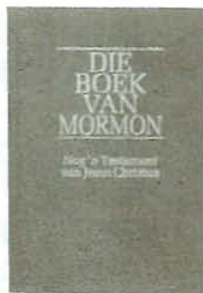
잠가-영어판, 1936년 (1994년)



포르투갈어판, 1939년 (1995년)



한국어판, 1967년



아프리카어판, 1972년



태국어판, 1976년



폴란드어판, 1981년



러시아어판, 1981년



민도(북연도)어판, 1982년



헝가리어판, 1991년



잠가-스페인어판, 1995년



일모노어판, 1995년
(팔리판에서 사용되는 언어)



더욱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이 책”을
 읽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몬경
 번역은 계속될 것이다.

1997년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에 번역 출판한 물몬경 발췌록판은 필리핀의 한 지방어인 와라이-와라이어판이었다. 한편, 그 밖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물몬경 발췌록판이 완전 번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에 출판되고 있는 새로운 언어의 번역판은 여러 종류가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언어의 발췌록판과 기존의 일부 번역판을 수정한 개정판이 포함된다.

영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지만, 인간이 물몬경(즉, 물몬경의 영과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을 철저히 이해하는 길은 모국어로 쓰여진 물몬경을 읽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저들에게 임하실 성신의 관리로써 성임되어 이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90:11)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점자로 된 물몬경이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 영상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1997년초까지 현재 미국어(영어) 수화로 된 물몬경 비디오테이프 11개 중

처음 7개가 사용이 가능하다. 나는 어느 한 형제가 미국어 수화로 된 테이프를 이용한 덕분에 물몬경에 담겨 있는 복음과 교훈들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어 최근 교회로 돌아와 활동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물몬경을 출판함에 있어서는 그 번역판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된 영역판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교리와 성약 135:3; 또한, 물몬경 속표지 참조) 어떤 언어의 번역판들은 독자들에게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개정(수정)되기도 한다.

이런 일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번역 작업은 대상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능하고 합당한 사람이 번역사로 근무하도록 부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물몬경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는 단지 번역 작업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탄탄한 배경 지식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의 감수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번역문은 영역판이 담고 있는 영과 의미를 가장 근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모국어 물몬경이든 외국어 물몬경이

든 물몬경을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하는 방법이다. 가장 가까운 배부 센터가 특정한 언어의 물몬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부 센터에서 해당 물몬경을 주문할 수 있다. 만약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 줄 (사전에 그의 허락을 받고) 물몬경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음 선교사가 물몬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선교부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요셉 스미스가 언급했듯이 물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이 책의 교훈들은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다른 어떠한 책의 가르침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이 책”을 읽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몬경 번역은 계속될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0쪽 참조) □

앤더슨 형제는 교회 교과 과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전 및 출판 조정 업무의 책임자이다.



각기콜어판, 1978년



페루, 케추어어판, 1979년



케체어판, 1979년



불가리아어판, 1980년



나뵤어판, 1980년



에콰도르, 케추어어판, 1980년



쿠나어판, 1981년



니누어어판, 1981년



볼리비아, 케추어어판, 1981년



루마니아어판, 1981년



캄보디아어판, 1982년



과라니아어판, 1982년



리오스어판, 1982년



스웨덴어판, 1982년



타갈로그어판, 1982년



서부 예르메니아어판, 1983년



중국어판-신간체, 1983년



에피크어판, 1983년



아이티어판, 1983년



몽어판, 1983년



키시어어판, 1983년



암어판, 1983년



미어어판, 1983년



페르시아어판, 1983년



스리랑카어판, 1983년



타카어판-로미 알파벳, 1983년



말레이-몰리네시아어판, 1984년



벵골어판, 1985년



비슬라미어판, 1985년



말라게시어판, 1986년



어칸-팡티어판, 1987년



파피아메토어판, 1987년



폰타어언어판, 1987년



타갈로그어판, 1987년



트럭어판, 1987년



플루어판, 1987년



김버트어판, 1988년



랑갈리어판, 1988년



팔라우어판, 1988년



쇼니어판, 1988년



우르두어판, 1988년



적모로어판, 1989년



세부어판, 1992년



힐리개어노어판, 1994년



팡판고어판, 1994년



조장어판, 1994년



외락어-외락어판, 1996년

이상 47개 국어 목본경은
발췌록판이며, 표시된 연도는
최초의 출판 연도를 나타낸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성품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선하고 견실하며 생산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선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을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선함을 더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원리입니다."(1996년 4월 30일, 필리핀 텔레비전 방송국 회견에서)

교회와 정치

"교회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 후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 건물과 시설이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치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입니다. 도덕적 문제로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에 초연하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편, 우리는 선한 정부는 예배의 자유, 곧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정부에 유익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식적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신앙개조 제11조]"(1996년 5월 18일, 일본 동경 기자 회견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신앙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에 대한 이해력의 원천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가져다 주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이 뜻하는 바,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내부에 신성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부나 머리 카락의 색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성한 생득권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루 이틀 동안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아름다운 장미와 같은 신세가 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속에 영원히 심어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든가 하는 어느 한 쪽의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로부터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란 그러한 환경 속에 목적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히 생애라기 보다 사명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 이상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1996년 5월 19일, 일본 후쿠오카 노변의 모임에서)

신권의 축복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축복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손을 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소유하신 신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실로 큼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생활화하는 사람은 보다 더 훌륭한 남편, 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 보다 더 훌륭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의 회복에 있어서 위대한 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님,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1996년 5월 21일, 한국 대회-부산)

우리의 신성한 책임

"참으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계시에 의하면, 온 세상의 운명은 바로 우리 손에 달

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되며 부도덕한 일을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바를 그 자녀들이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 5월 24일, 대만 타이페이 선교부 대회에서)

신앙 안에서 결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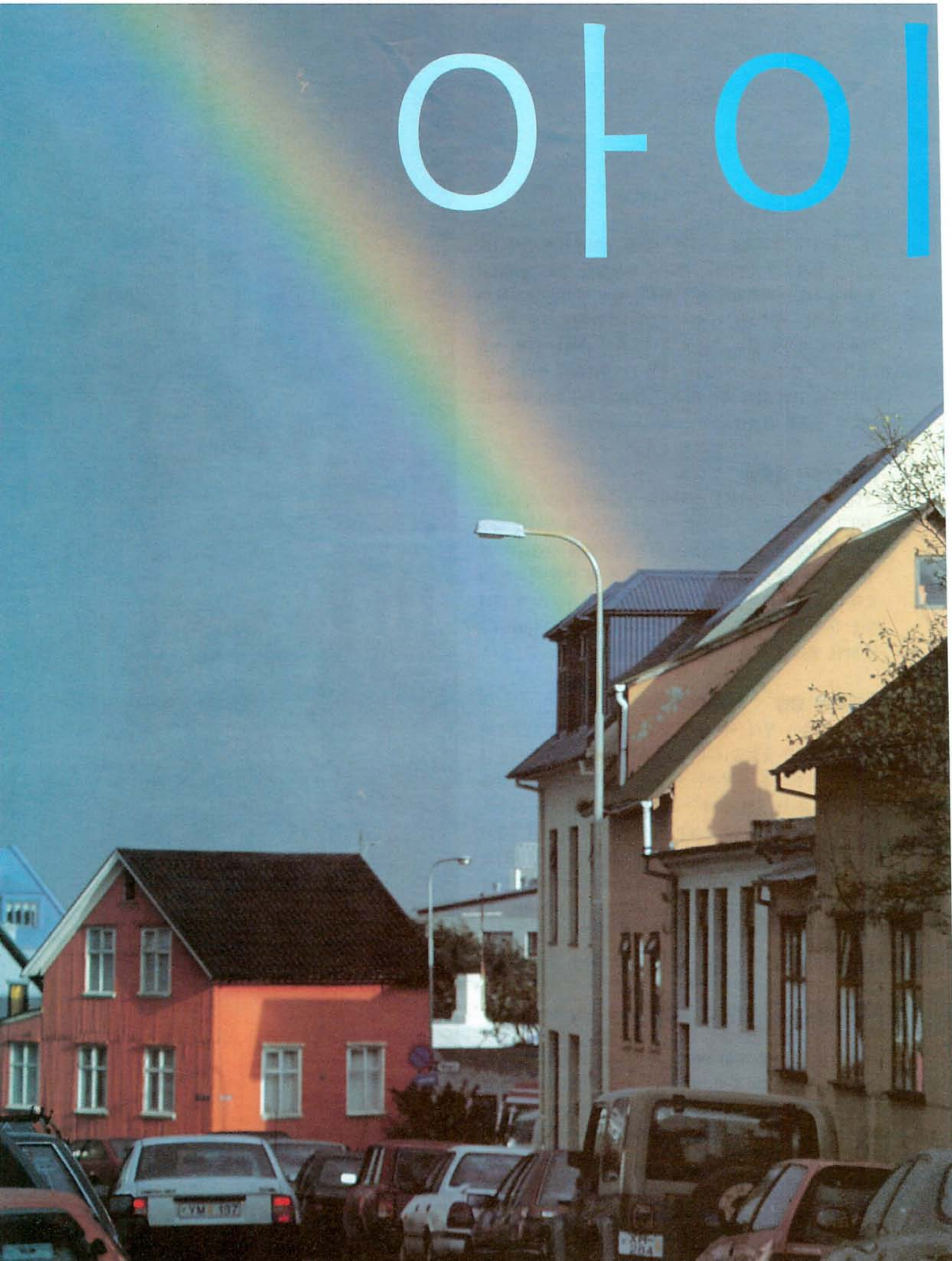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말일성도 여성과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말일성도 남성과 사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 5월 31일, 필리핀 세부 시 노변의 모임에서)

빈곤 퇴치 방법

“저는 지구 상의 이 지역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빈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의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생활을 축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빈곤 속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희망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슬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생활에 실천한다면, 그리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친다면, 비록 금액은 보잘 것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온 마음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먹을 쌀을 갖게 되고, 그들은 입을 의복을 갖게 되며, 그들의 머리 위에는 안식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그들을 돕고 일으켜 줄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6월 1일, 필리핀 세부 선교부 선교사 모임에서) □



아이



스웨덴

개척담 계속



지 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북극권을 기점으로 정 남쪽에 위치한, 한-외딴 섬에 일단의 바이킹(북유럽의) 탐험가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아이슬란드이다. 아이슬란드는 항량하면서 아름다운 땅이었다. 혹독한 기온을 견디고 울퉁불퉁한 땅을 경작해야 했던 이 정착민들의 삶은 쉽지 않았다.

이 초기 동안 북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공통어를 사용한 까닭에 아이슬란드 정착 및 건국 당시의 용감한 에피소드를 담은 개척담(모험담)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 현대의 아이슬란드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초기의 언어와 근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중세기의 이런 개척담들을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사실 오늘날의 아이슬란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불편하다. 그러나 또 다른 개척담이 여기에 펼쳐진다. 아이슬란드 역사의 또 하나의 장이 바로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약 150년 전인 1851년에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내에 회복된

디앤 워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잠시 동안 교회는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후 박해의 어려운 시기를 지냈으며, 1914년에는 선교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이르러 당시 칠십인의 일원인 조셉 비 워스틴 장로에 의해 이 땅은 공식적으로 선교 사업을 위해 헌납되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적은 무리의 헌신적인 말일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왼쪽: 레이캐비크 주택가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이 무지개로 인해 돋보인다. 오른쪽: 1976년 침례 받은 후 스베인보르그 거드먼드스도티르 자매는 교회 번역사가 되었다. 그녀의 최초 임무는 물문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사진: 바더 에이 건나손 형제의
이력을 받아 개세암.



오른쪽 위: 바더 에이
건나손 형제와 그의
가족이 1995년 런던
성전에서 인봉을 받다.
오른쪽 아래:
아이슬란드 지방부장
올라푸르 에이나손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사업에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언어 자체가 첫째로 꼽히는 장애의 하나였다. 아이슬란드어는 온 세상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다. 아이슬란드 내에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어로 번역된 교회 출판물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경전도 교재도 없었다. 주마다 모든 공과 자료를 번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75년,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아이슬란드로 돌아왔을 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최초로 관심을 가진 구도자들 중 한 사람은 스페인보르그 거드먼드스도티르 자매였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1976년에 침례 받은 후 얼마 안되어 이 자매는 교회 번역사로서 20년 경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의 최초의 임무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그때까지 번역한 것은 고작 선교사용 소책자뿐이었거든요.” 이 자매는 번역 기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 여러 시간을 보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몰몬경 번역 작업은 스페인보르그 자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그녀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 해낼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어 몰몬경은 1981년 6월에 출판되었다.

현재 아이슬란드어 경전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성



도들은 새로운 힘과 결의에 차 있다. 그들에게는 성전 축복을 받는 것이 최우선적인 소망이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어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가 요원해 보였다. 영어를 아는 일부 회원들은 영국 런던까지 멀고도 비싼 여행을 하여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다.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도 가기는 했지만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 방문 경험은 때때로 힘들고 좌절감만 갖게 했다. 이리하여 아이슬란드 성도들은 성전 의식문이 번역될 날만을 학수 고대하였다.

성전 방문의 꿈이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것은 곧 신앙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1981년, 드디어 스페인보르그 자매가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성전 의식문을 번역하도록 지명되었다. 그러나 이 자매의 번역문은 녹음이 안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스페인보르그 자매는 재차 그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 번역문을 최신의 것으로 새롭게 하고 녹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 10년 기간 동안 아이슬란드 교회는 성전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간증은 커 가고 있었고 새로운 회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거드먼더 시저드손 형제와 그의 아내 발게더 크누츠도티르 자매는 1982년에 침례를 받았다. 거드먼더 시저드손 형제는 1983년에 레이커비크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후 1986년에 초대 아이슬란드 지방부장이 되었다.

거미 형제(거드먼더 시저드손 형제의 별칭, 그는 이 호칭



거드먼더 시저드손 형제와 그의 아내, 발게더 크누츠도티르 자매. 이들은 1982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슬하에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부부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레이커비크 지부의 회원들은 1995년 6월 런던 성전 방문 이후로 하나로 단결, 회원간의 유대와 간증을 강화시켰고 복음 안의 사랑을 새롭게 하였다.

을 듣기 좋아한다.)는 아이슬란드 교회가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교회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고립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거죠. 때로는 나를 돕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부탁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지도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서 새로운 지도자의 부름을 주면 그들이 기꺼이 응해 도와줍니다.”

근래에 부름 받은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현재 레이커비크 지부장으로 있는 바더 건나손 형제이다. 이 형제 역시 말일성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1982년에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의 생각이 종교와는 거리가 먼 때였다. 그의 생활 방식은 그 나라의 대부분의 다른 젊은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았다. 바더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흡연과 음주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

다.” 그는 가족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족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시작된 가족이었다.

장로들이 처음 그의 집문을 두드린 때로부터 4년 후, 바더 형제는 마침내 가족을 결합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소망은 그의 세 명의 딸의 어머니인 올뢰프 브야르나도티르 자매와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당시 올뢰프 브야르나도티르 자매는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바더 형제가 세 명의 딸들을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가는 데는 동의하였다. 바더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제가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성전에 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결합시키려는 바더 형제의 꿈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아이슬란드어 성전 의식문 녹음 일정이 짜여졌다는 연락이 접수된 1994년에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해 5월에 올뢰프 브야르나도티르 자매는 녹음을 하기 위해 부름 받은 몇몇 회원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바더 형제를 따라갔다. 솔트레이크 태버나클 침례당에서 바더 형제는 그의 친구들에 둘러싸인 채 그의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들 부부는 런던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의식문 녹음 사업은 5일 만에 완료되었다. 녹음을 한 그룹은 성전을 떠나기에 앞서, 완성된 작품의 일부분을 시청하도

록 허용되었다. 시거드손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필름의 일부분을 보고 우리 나라 말로 된 처음 몇 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방문의 놀라운 경험을 고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레이커비크 지부 회원들의 성전 방문 여행 계획은 이제야 겨우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하는 일 외에도 가족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계보 사업을 하는 일, 성전 방문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일 등도 하여야 했다. 모든 가족들이 성전 방문을 계획하게 되자 그 비용은 꽤 큰 금액이 되었다.

올라푸르 에이나손 지방부장은 당시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원들이 성전 방문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회원들은 놀랄 정도로 들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큰 사랑과 관심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일체감을 지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필요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1995년 6월에 성인과 아동을 포함하여 38명의 레이커비크 지부 회원들이 런던 성전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

업에만 전념하였다. 지부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한다.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동안 우리 일행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의식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안 서로 대하는 사랑과 친절이 점차 커 갔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키우고 복음 안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고향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왔다.

교회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아이슬란드 성도들의 신앙 개척담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전 해의 성전 방문 추억이 아직 충만해 있었던 1996년 6월에 몇몇 레이커비크 지부 회원들이 런던 성전으로 2차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성전에서 그들은 주님과와의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 소상의 언어로 집행되는 성스러운 의식에 또 한 차례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다. □



사진: 스베인보르그 게드민드스도티르 자매의 여력을 받아 개제함.



왼쪽: 1996년 레이커비크 지부의 일부 회원들이 2차 런던 성전 방문 여행을 하다.

중앙: 이끼로 덮인 화산암들이 아이슬란드 전역에 산재해 있다.

오른쪽: 올라푸르 에이나손 형제와 그의 아내 보르그 마르테인스도티르 자매가 복음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나의 꿈이 실현됨

마리아 로신카르스도티르가 디앤 워커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

비 침 례 의 아 이

19 76년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약 10년 전,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이 꿈에서 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나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내 별명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야, 너는 훗날 외국에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후로 나는 이 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도대체 아버지의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날, 그날은 놀라운 날이었다. 나는 전에는 언제나 매우 개방적이었고 종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듣는 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나도 반박하고 많은 질문을 하곤 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귀담아 들어! 그들의 말을 가로채지 말고 듣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올바른 장소, 올바른 교회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 나는 마루 위를 걸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분들은 주님의 종들이야! 난 그것을 느낄 수 있어!” 나는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배웠다. 이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몇 차례 공과를 들은 후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했다. 사실 이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그리고 기도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평안을 느꼈고 마치 주님의 팔이 나를 껴안아 주는 것처

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내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데 대해 나의 다섯 자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 결국 남편은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허락했지만 내가 침례 받은 후에는 그가 몹시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 나의 친구들과조차도 남편을 거스른 데 대해 나를 비난하였다. 하지만 나는 필요한 힘을 언제나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되었을 때, 나는 초대 아이슬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당시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는 주님께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

마리아 자매가 가족 역사 도서실에서 무수한 시간을 보냄.



사진 촬영: 제니 토마스



리 모두가 신입 회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영어로 된 교재와 지침서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서적은 영어를 모르는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러한 때 스베인보르그 거드먼드스도티르 자매가 교사들이 매주 가르칠 공과들을 번역해 주었다. 이들 번역된 공과 교재들은 내가 여태까지 보아 온 아이슬란드어 교회 출판물 중 최초의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교재를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들 교재를 읽고 또 읽곤 하였다. 과거를 회고해 볼 때, 가장 좋았던 시절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하여 나의 가족 역사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교회 회원이 된 후로 나는 또 한 차례 꿈을 꾸었다. 이 꿈에서 나는 어떤 손님들—매우 저명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연어 요리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 손님들에게 줄 연어 요리 서너 접시를 식탁에 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연어 요리 접시를 더 내놓으려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훼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꿈을 꾸다가 나는 잠시 잠에서 깨어났지만 너무 졸려 다시 잠들었다.—똑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나에게 연어 요리가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이 연어 요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다.)—나는 정말 남에게 줄 연어 요리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성전에 조상들의 이름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꿈은 내가 가족 역사 도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기록을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가족 역사 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나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을 성전으로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사진: 올라푸르 에이나손 형제의 이력을 본어 계계명.

마리아 자매의 꿈은 그녀가 1995년 6월에 37명의 다른 아이슬란드 성도들과 함께 런던 성전으로 여행하여 아이슬란드어로 집행되는 성전 의식에 참석했을 때 실현되었다.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이 목표가 실현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다가 성전 의식문이 아이슬란드어로 번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몹시 설레었다! 하지만 19년 동안이나 계보 사업을 했으면서도 내가 성전에 갈 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웬일인지—나는 합당치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도 내가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부 회원들이 성전 방문 여행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접견하러 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어느 일요일, 올라푸르 지부장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부장이 나에게 왜 성전 추천서를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지부장은 “자매님은 왜 자신을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십니까? 자매님은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자매님이 성전에 가실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자매님은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또 나의 남편을 만나서 내가 성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도록 부탁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지부장실에서 나온 후, 나는 몹시 기뻐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포옹으로 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기뻐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이 또 찾아들었다. 나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물론, 당신도 가야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런던 성전을 방문하였다. 성전 안에서 나는 29년 전 꿈 속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 외국에 와서 나의 조상들을 위하여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느낀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자신의 엔도우먼트 의식을 받고 헤의 왕국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옛날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누가복음 2:29~30 참조) 나는 또 이 성전 방문 경험을 가진 이 후로 내가 죽을 때에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참으로 꿈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

들 종 다 리 새

알 발 존슨

그림: 팻 거버

여섯 살 때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늦봄 어느 날 맑게 개인 아침이었다. 학교 통근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다. 조그만 들판을 절반 가량 걸었을 때,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음성이 “나는 어여쁜 작은 새예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노래하는 소리였다. 나의 어머니는 그것이 목장 종다리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묘한 감정이 갑자기 전신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었고 내 주위의 세계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위를 쳐다보았다. 하늘은 끊임 없이 빛깔을 바꾸는 바다와 같았고 그 속에 깃털 배 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공기는 깨끗하고 싱싱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들판을 금빛 노란 야생화들로 가득한 투명체처럼 보았다.

어쨌든 들종다리 새들이 대지의 아름다움과 나 자신이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준 것이다. 내가 느낀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날 나는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어떤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열여섯 살 때였다. 그때 나는 20 구경 사냥총 신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꿩을 사냥하러 나갔다. 내가 사냥총을 갖게된 후로 매번 그렇듯이 이번에도 한 마리도 맞히지를 못했다. 그날 늦은 오후였다. 우리 집 북쪽에 있는 작은 산 가를 지나가다가 나는 전방 18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총을 들고 쏘았다. 자욱한 먼지와 깃털의 움직임을 보니 직통으로 맞았음이 틀림 없었다. 나는 그 곳으로 뛰어갔다. 부상 당한 종다리새가 애처롭게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었다. 내가 주어 올리

려고 손을 뻗었을 때 새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때부터 나는 흥을 잃기 시작했으며, 구역질이 나왔다. (그 후 나는 이런 증상이 혐오감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나 다른 유익한 목적을 위해 죽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 삼아 죽였던 것이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 들종다리새는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나의 젊음의 작은 일부 분도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삶(생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다소나마 죽음에 관한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이용하도록 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땅에서 거두어 들이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배웠다. 주님은 당신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남용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교리와 성약 59:18~21)

감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과 그것들이 주어진 목적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식탁에 놓여진 꿩 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종다리새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했으면 한다. □



신권의 권세는 실재합니다

피터 포마트

아직 나는 제사로서 한번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신권의 권세가 실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런던 온타리오 캐나다 스테이크 원저 와드의 제사로 성임 되었을 때, 청남 회장이던 샌더 형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찬 축복과 전달을 하며 침례를 주도록 격려해 주었다. 어느 주일 공과 시간에, 그는 또한 아론 신권 성임을 할 때 축복을 주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영이 속삭이는 대로 말하는 담대함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말만을 하려 하지 않는 겸손함도 지녀야 합니다.”

그 공과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와드의 한 청소년 개종자가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에 지지되었다. 샌더 형제는 내게 그 청남을 성임할 것을 부탁했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도 안수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한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영은 내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며, 청남 회장이 우리

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다.

성임될 그 청남은 의자에 앉고, 나는 그 청남 바로 뒤에 섰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었을 때, 샌더 형제가 성임 기도를 하였고, 나는 그가 하는 대로 따라 말했다. 우리가 성임을 마친 후 “...이제 우리는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주려 하노라.” 하는 말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샌더 형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내가 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바로 그 순간, 내게 있어서 신권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권은 더 이상 단순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이었다. — 나는 바로 그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잠깐 멈추어 서서 내게 해야 할 말들을 영이 속삭여 주기를 기다렸다. 내가 축복하는 동안 가진 느낌들을 설명하기란 아주 힘들다. 그렇지만, 신권의 권세가 실재한다는 매우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신권이 1829년에 회복되었을 때,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을 위한 열쇠가 부여되었다. 나는 그 열쇠들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으며, 신권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신앙 지킨 50년

경관은 그녀의 책을 거의 다 빼앗아 갔지만,
그녀의 간증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혼자 틈사

1994년, 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구름 낀 어느 날이었다. 친구인 이베타와 함께 나는 체코 공화국의 플라도 볼레스라브의 구시가지로 찾아 가는 길이었다. 당시 16세이었던 우리는 방학을 이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교회 회원이었던 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공산 치하가 지속되는 동안, 체코슬로바키아(현재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공화국들)의 조그만 우리 마을에서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때로 무척 얻기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많은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우리는 명단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하였다. 우리는 남겨진 주소에서 보다 많은 정보와 이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을 열어 여인에게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임을 밝히며 그녀의 모친에 관해 물어 보았을 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군요. 너무도 오래된 과거의 일이잖아요.” 라는 그녀의 대답은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이베타와 나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과연 헛된 것

“교회 회원들은 더 이상 같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단다. 그 후, 경관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복음에 관련된 모든 서적과 자료들을 몰수해 갔지.” 하고 할머니는 그때 일을 회상했다. “그렇지만, 난 책 한 권을 간직할 수 있었단다. 나는 그 책을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읽어 왔단다. 그 책은 내게 도움이 되었고 나를 지탱시켜 주었지. 그 책은 세상이 어떠한지 알려 주고 있단다. 나는 언젠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단다.”

일까하고 의아해 하면서, 낙담한 채 닫힌 문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다.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이베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에 참석했거나, 교회 회원을 친구로 두었던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연로하신 분들께 전쟁 전 교회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제안이 도움이 될지는 미심쩍었지만, 그렇게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우선 만나는 모든 연로하신 분들에게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새삼 놀랄 것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더 물어보고 집으로 돌아 가기로 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65세된 할머니였는데,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많은 말일성도들을 알고 있었지. 모두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가 미처 작별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연세가 많이 드신 이모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시리라는 말을 전했다.

그 다음날,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중년 부인이 문을 열어 주며 들어오도록 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인, 그녀의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할머니는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을 무척 반가워 하셨다. 할머니는 교회 회원이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셨다.

“내 나이 이제 아흔 세 살이란다.” 하시며 할머니는 말을 이으셨다. “거의 50년의 세월을 난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왔단다.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전

에 선교사들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선교사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곧 그들이 다른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는 내가 50년 전에 선교사들에게서 느꼈던 그러한 영을 느낄 수 없었지. 그래서 돌려 보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과연 나도 50년간이나 주님의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생활한 후에도 여전히 영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이 훌륭한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우리를 할머니에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했다.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성찬을 취하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근 방문 때에, 우리는 리아호나(체코판 교회 잡지) 몇 권을 할머니께 갖다 드리며,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교회 회원들은 더 이상 같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후, 경관이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복음에 관련된 모든 서적과 자료들을 몰수해 갔지.” 하고 할

머니는 그때 일을 회상했다. “그렇지만, 난 책 한 권을 간직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읽어 왔단다. 그 책은 내게 도움이 되었고 나를 지탱시켜 주었지. 그 책은 세상이 어떠한지 알려 주고 있단다. 나는 언젠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탁자에서 책 한 권을 집어 나에게 건네 주셨다. 그 책은 1911년부터 1933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저서인 체코판 신앙개조였다. 그 책은 1938년에 발행된 것이었다. 나는 놀랐다. 나는 그 책을 아직 읽어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삶에 미친 그 책의 선한 영향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그 해 여름, 여가 시간에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당시 16세 소년이던 나는 인내라는 말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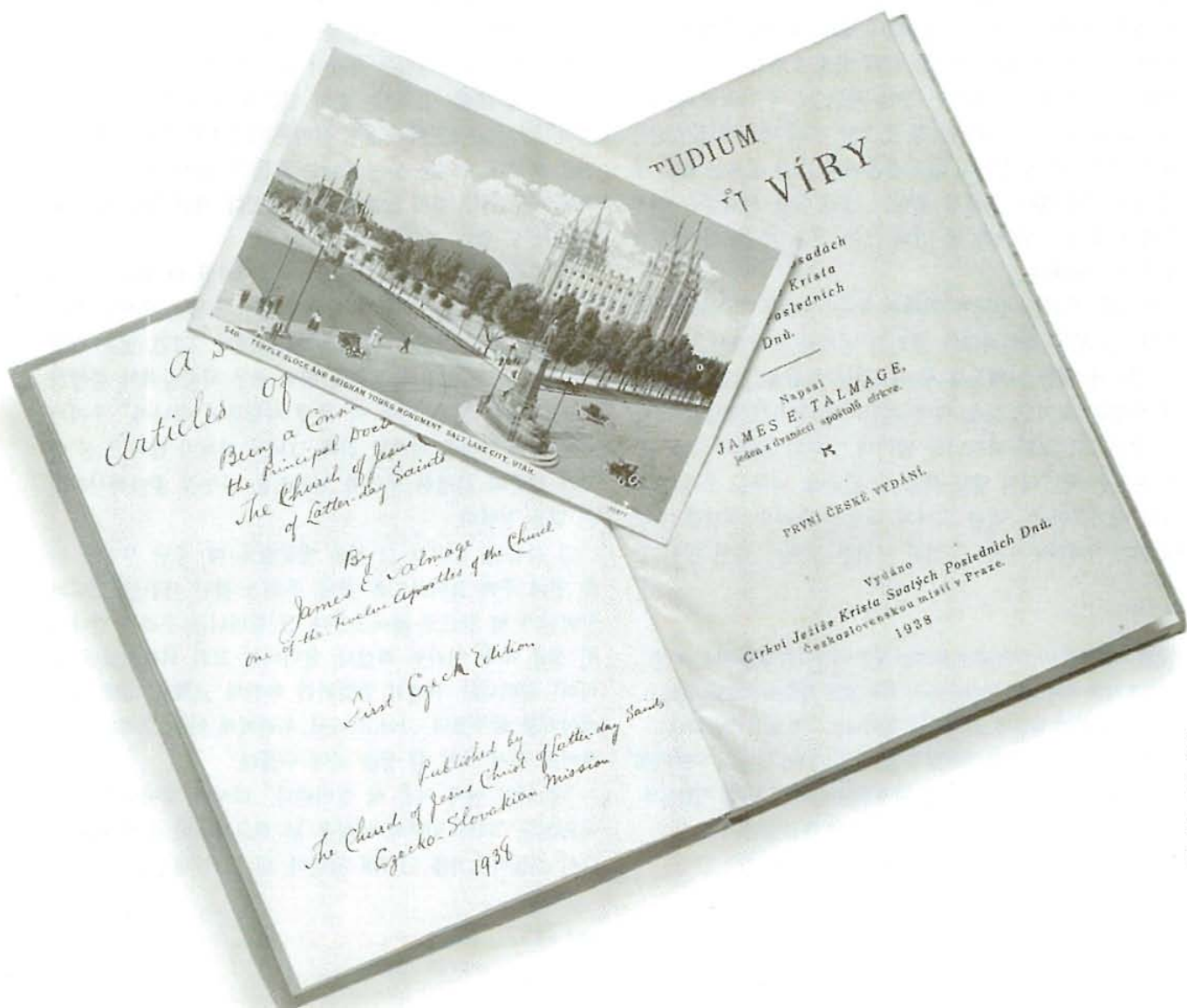


사진 촬영: 엘트 앤더슨



사진 촬영: 조지 에드워드 엔더슨
영국 크리스찬 오토스의 지배들이 버뮤더 가버 찰스의 찰스 찌고 영 1898



교회가 조직된 후 30년이 지나 출생한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은 모든 말일성도들을 위해 훌륭한 유산을 남겼다. 그는 교회의 역사적인 장소들과 개척자의 생활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마을 사진사의 꿈”, 16쪽 참조

